

MAYA and the Secret World of Agoda



MAYA and the Secret World of Agoda



By AI (and a little bit of human touch)

The content of this book was created and translated using OpenAI's GPT-3.5, under the supervision of Agoda's legal, marketing, tech, and translation teams. The visuals were generated using Midjourney v5 and further perfected by Agoda's Brand Design team. This children's book is not just a story, but a showcase of Agoda's passion for tech and innovation. Above all, it's an ode to life at Agoda and a celebration of the thousands of talented Agodans who work tirelessly day in and day out to help travelers see the world for less.

this book belongs to



Maya could hardly contain
her excitement as she sat
at the breakfast table.
Today was a special day.
She was going to join her
mother at work!

아침 식탁에 앉은 마야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회사를 방문하는
특별한 날이니까요!

Maya and her mom hopped
into a colorful tuktuk.
The wind whizzed through her hair
as they zipped through
the bustling streets of Bangkok
towards Agoda's office.

마야와 엄마는
알록달록한 오토바이 택시인
뚜๊ก뚜кке 올라탔습니다.
둘은 바람에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방콕의 번화한 거리를 헤치고
아고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Maya entered her mom's office,
and her eyes widened at the sight of
countless computer screens.

"Wow!" she exclaimed.

Wait, what was that?

Did Maya see some sort of
green animal crawl over the screen?
She must have imagined it, she thought.

엄마의 사무실로 들어간 마야는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우와!” 수많은 모니터 속에 초록색 지렁이들이
스물스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야는 설마 진짜일리가 없다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Maya discovered meeting
rooms that looked like different
tourist destinations.
"This one's like a beach!"
she giggled.

마야는 각기 다른 여행지처럼 보이는
회의실들도 발견했습니다.
"이 방은 마치 해변 같아요!"
그녀는 킁킁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Back at Mom's desk, Mom explained A/B testing,
something she was doing right now.

"Imagine if most people prefer chocolate ice cream,"
Mom said. "That tells us we need to make more
chocolate because it's everyone's favorite."

책상으로 돌아와
엄마는 요즘 일하고 있는 A/B 테스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만들어야 할까?” 엄마가 물었습니다.
마야가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 바로 그거야!”

On their way to lunch,
they passed a server room,
and it seemed to Maya that the servers
stretched all the way to the horizon.
Maya asked, "What are these for, Mom?"
Mom explained, "They make sure people
all around the world can book
their holiday at the same time, like magic!"

점심 시간에 마야와 엄마는 서버실을 지나갔습니다.
서버실은 너무나 길어서 마치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야가 물었습니다. “이 방은 뭐예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이 서버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휴가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해준단다,
마치 마법처럼 말이지!”





Mom and Maya sat at lunch with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and origins. Maya learned about diversity at Agoda, how everyone brought their unique experiences and ideas.

점심시간이 되자

엄마와 마야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마야는 아고다의 다양성을 몸소 체험했으며 모두의 독특한 경험과 아이디어가 어떻게 녹아드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On the way back from lunch, all of a sudden,
red lights flashed, and an alarm sounded.
There was a bug! In the war room,
people worked closely together,
hearts racing, to fight the unexpected intruder.
Teamwork saved the day.

점심 식사 후,
갑자기 빨간 불이 깜박이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버그가 발생했습니다!
긴급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와 싸우기 위해
모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끈끈한 팀워크가 아고다를 구했습니다.





Maya watched her mom code
when they returned to her desk.
Maya imagined that with each line of code,
they defeated bugs, dark wizards,
and ugly trolls in a magical world.

마야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엄마가 코딩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각 줄의 코드가 마치 마법 세계에서
버그, 나쁜 마법사,
추한 괴물을 상대로 싸우며
세계를 구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On the ride back home, Maya said,
"Wow, your work is really exciting,
Mom! Is every day like this?"
Mom laughed and replied, "Today was relatively calm.
It's always exciting at Agoda, but more importantly,
I learn something new every day."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야는 “우와, 엄마 일은 정말 흥미로워요!
매일 이렇게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조용했단다.
아고다에서 일하는 건 언제나 재미있어.
더 중요한 건 매일 새로운 일을 배운다는 거지.”





As mom tucked Maya in and gave her a kiss,

Maya drifted into a vivid dream.

She dreamed of being on the beach.

The same one she saw in the meeting room!

Some of mom's colleagues were there too,

enjoying chocolate ice cream.

And on the water, trolls and bugs

were surfing on the waves.

This was just Maya's first adventure into

her mom's world of software development,

and she hopes there would be many more to come.

밤이 되어 엄마가 마야를 안아주며 이마에 부드러운 키스를 하자

마야는 포근한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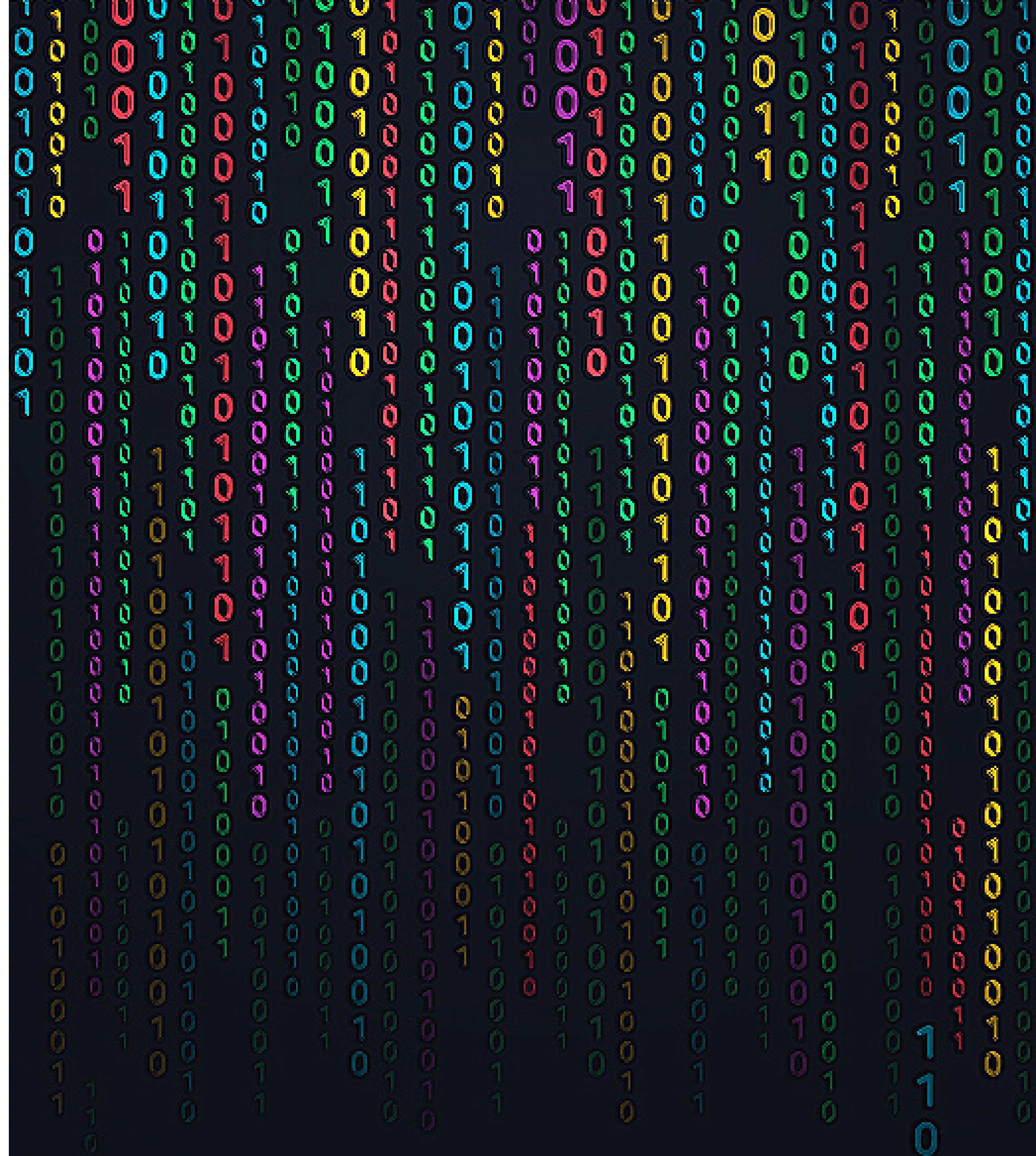
꿈속에서 마야는 오늘 봤던 회의실처럼 보이는 해변을 여행했습니다.

엄마의 동료들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고

괴물과 버그들은 바다에서 파도타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엄마의 소프트웨어 개발 세상을 구경한 첫 날이었습니다.

마야는 이런 날이 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agodaCareers



lifeatagoda



Agoda



agoda-engineering



agoda.com



lifeatagoda



agodalife

www.careersatagoda.com